

# 광주·전남 지난해 연말 소비도 ‘꽝꽝’

12월 소비 각각 5.5%, 13.9% 감소

광주 생산 자동차 중심 4.2% 개선

전남은 주력산업 부진에 4.7% 줄어

지난 연말 광주·전남지역민의 소비활동이 대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대형소 매점들이 연말 특수를 겨냥해 다양한 프로모션 에 나섰으나,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지역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판매액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 산업 생산은 광주만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개선됐고, 전남은 주력 산업인 화학·철강 등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1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5년 12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은 지난해 12월 대형소매점 판매 액이 감소했다.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2.0으로 전년 동월(107.9)과 전월(103.4) 대비 각각 5.5%,

1.4% 감소했다. 업태별로 백화점 판매가 3.0%, 대형마트 판매는 9.3% 줄었다.

겨울철 할인 프로모션 등의 영향으로 신발·가 방, 가전 등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백화점 매출 하 락폭을 줄였지만, 농수산 먹거리를 중심으로 고물 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형마트 판매 하락폭이 확 대됐다.

같은 기간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6.8 에서 74.7로 13.9% 감소했다. 백화점이 없는 전 남지역 특성 상 대형마트에서 음식료품, 화장품, 가전 등 매출이 모두 감소하며 하락폭을 두자릿 수 로 키웠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지역 생산과 건설투자 측면에서는 산 업 동향이 엇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광 공업 생산이 늘고 건설수주는 대폭 줄었다.

광주 광공업생산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7.2로 전년 동월(122.1)보다 4.2% 상승했다. 제조업지수가 125.6으로 1년 새 4.6% 개선된 점 이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가 14.3% 늘 었고, 전기장비(36.1%), 전자·통신(50.6%) 등

도 광공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광주 건설수주액은 전년보다 70.8% 감소한 1103억원을 기록했다. 공공부문(-66.8%)과 민 간부문(-72.0%)에서 모두 건설수주액이 줄었다. 부문별로 건축부문에서 주택, 학교, 병원, 관공서 등의 건설이 73% 줄었고, 토목부문에서도 상·하 수도, 조정공사 등이 62.7% 감소했다.

전남지역은 지역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생산 이 감소한 반면 건설수주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됐다.

지난해 12월 전남 광공업생산지수는 107.8로 1 년 전보다 4.7% 하락했다. 업종별로 석유정제가 3.7% 증가했지만, 화학제품(-9.0%), 1차금속(- 6.4%), 전기장비(-38.5%) 등이 감소했다.

전남 12월 중 건설수주액은 1조 4405억원으로 전년도의 2배 수준에 달했다. 공공부문에서 9.9% 증 가하는데 그쳤지만, 민간부문에서 부동산, 기타비 제조업 등이 늘어나며 195.9% 늘었다. 토목부문 에서 발전·통신, 토지조성 등이 늘어난 점이 전반 적인 건설수주액 상승을 견인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중기부 기업 연계 지원에 광주 외국인 유학생 취업 기대 ↑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모집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도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지 역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취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높은 광주지역 대학가의 기 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 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참여 대학교와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 기관을 모집 한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사업은 외국인 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 현 장 실습 등을 제공해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프

로그램이다. 지역 대학이 참여할 경우 유학생 교 육과 기업 매칭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취업 연 계 효과가 기대된다. 모집 규모는 신규 5개 대학 내외로 대학당 1억 50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지원 된다.

특히 광주는 호남대와 동신대 등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이 많아 지역 대학과 중소기업 간 연계 모델이 활성화되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해외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수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 업이다. 무역 실무 등 수출 분야 직무 교육을 하고 수출 중소기업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영기관 1곳을 선정해 주요 권역별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취업 연계와 함께 비자 지원도 병행한

다. 유학생 채용과 관련해 전문 인력 비자(E-7-1) 고용 추천과 비전문 인력(E-9)의 숙련기능인 력(E-7-4) 전환 추천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기 업 제출 서류를 6종으로 간소화했고 E-7-1 추천 직종도 기존 24개에서 해외영업원, 상품기획전문 가, 조자전문가 등 3개를 추가해 취업 연계 폭을 넓혔다.

사업 공고는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0일까 지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 매칭 플랫폼 ‘K- WORK’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비자 추천 사업은 같은 플랫폼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이해부터 한국어, 산업안전교육 등 교육을 통해 졸업 예정 외국인 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밀라노 선수촌 달군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7

호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브랜던 코리가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 내 삼성 체험관을 방 문해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과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갤럭시 Z 플립3 올림픽 에디션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6일(현지시간)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 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에서 경기 참가 선수들에게 3800대의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을 전달했다.

<삼성전자 제공>

## 한국 대졸 초임, 일본·대만 크게 웃돌아

대기업 격차는 약 1.4배 높아

한국의 대졸 신입사원 임금 수준이 일본, 대 만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한·일·대만 대졸 초임 국제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대졸 초임은 구매력평가환율(PPP)을 기준으 로 일본보다 24.5%, 대만보다 41.1%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대졸 이상 신규 입사자(상용근로자)가 받는 연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을 대상으로 했다. 한 국 대졸 초임은 4만6111달러로 일본(3만7047 달러) 대비 24.5% 높았으며, 기업 규모가 커질 수록 격차가 확대됐다.

한국 대기업(500인 이상)의 대졸 초임은 5만 5161달러로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 3만 9039달러 대비 41.3% 높았다. 중기업은 29.3%, 소기업은 21.0%의 격차를 기록했다. 양국 간 비교가 가능한 10개 업종 가운데 9개 업종에서 한국 대졸 초임이 일본을 상회했다. 금융·보험업(5만3641달러)이 일본의

144.7% 수준이었고 전문·과학·기술업(5만 2261달러·134.0%), 제조업(5만1037달러· 132.5%) 순으로 격차가 컸다.

대만과의 비교에서는 한국은 5인 이상, 대 만은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졸 신규 입사자의 연 임금총액(특별급여 제외)이 조 사 대상이 됐다. 한국의 대졸 초임은 평균 4만 2160달러로 대만(2만9877달러)보다 41.1% 높았다.

한국 비중소기업(100인 이상)의 대졸 초임은 4만5758달러로 대만 비중소기업(200인 이상) 보다 37.0% 높았고, 한국 중소기업(5~99인) 대졸 초임은 3만9481달러로 대만 중소기업(1~ 199인)보다 44.9% 높았다.

전기·가스·증기업(대만의 101.5%), 숙박·음 식점업(111.3%), 교육서비스업(117.5%)에 서는 비교적 격차가 적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은 높은 대졸 초임에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가 결합하 고 노조의 일률적·고율 임금 인상 요구가 더해지 면서 대기업 고임금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말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광주상의, 10일까지 기업 제도 개선 과제 발굴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지역 기업의 원 활한 경영 활동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 업 투자 예로·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1 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장 신·증설,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인허가 지연 등 경영 현장에서 기 업이 겪는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광주상의는 지역 기업의 경영 환 경 개선과 규제 해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정치권에 건의해 왔다. 지난해에는 48건의 과제를 건의해 18건이 수용 또는 일부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산업용 전기요금 밤엔 올리고 낮엔 내린다

태양광발전 맞춰…1분기 중 개편

올해 1분기 중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 금은 올리고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는 요금체제 개 편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공개한 에너지 전환 분 야 업무계획에서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 금을 인상하고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80~185원 이다. 현재는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 시 간대보다 35~50% 싸다. 낮 시간대 수요를 받으 로 옮겨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 리는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태양광발전 등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다.

요금체계를 개편해 낮에 급증하는 태양광발전 발전량을 산업계가 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이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기후부는 지역별 요금 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요금제는 송전비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 발전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도

록 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기후부는 또 주택 히트 펌프에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와 ‘일반용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 밖에도 주민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이득을 나눠 갖는 ‘햇빛소득마을’을 올 해 500곳, 2030년까지 총 250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 로또복권 (제 120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17	20	35	37	39	2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371,910,466		22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8,908,745		73
3	5개 숫자일치			1,601,509		3,141
4	4개 숫자일치			50,000		163,147
5	3개 숫자일치			5,000		2,724,028

스타벅스 증정 가습기 전량 ‘리콜’

39만여대…“전지로 인한 화재 우려”

스타벅스 코리아가 작년 겨울 소비자에게 증정 한 가습기 2개 모델이 전량 리콜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스타벅 스 코리아(㈜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작년 10~12월 소비자에게 증정한 가습기 2개 모델(STH-600G· STH-600P) 전량에 대해 오는 2일부터 자발적 리 콜(회수·보상 조치)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작년 10월 30일부터 12월 31 일까지 스타벅스가 e-프리카시를 통해 소비자에 게 증정한 것으로모두 39만3548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가습기 전지 화재 사고를 파악하고, 제품안전기본법에 따 라 제품 사고 발생 사실을 국표원에 보고했다. 이 어 국표원과 조치 계획을 협의한 뒤 추가 사고 예방 을 위해 선제적인 자발적 리콜 실시를 결정했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 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제품 보 유자는 스타벅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나 스타벅 스 앱에서 리콜을 신청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자고나면 뛰는 대출금리…영끌족 ‘죽을 맛’

4대 은행 주담대 1주일 0.05%p ↑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뛰 고 있다.

당분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 기 어려워지면서, 국고채·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은 지표금 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까지 늘려 대출자 들의 금리 부담을 더 키우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의 지난 3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 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 6.390% 수준이다.

지난 23일(연 4.290~6.369%)과 비교해 불과 1주일 사이 상단이 0.021%포인트(p) 올랐다. 시 장에서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 가 0.040%p 오른 데 영향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 준금리 인하 종료를 시사한 데다가, 미국 연방준비 제도(연준·Fed)까지 29일 인하 행렬을 멈추면서 시장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금리(연 3.850~5.300%·1 등급·1년 만기 기준) 하단과 상단도 은행채 1년물 금리 상승(+1.03%p)과 함께 0.060%p, 0.040% p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연 3.820~5.706%·신 규 코픽스 기준) 상단 역시 지표인 코픽스(COFIX )에 변화가 없는데도 0.052%p 높아졌다.

이번 주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높아질 전망이 다. 당장 KB국민은행이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 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 의 최근 상승 폭인 0.03%p만큼 추가로 인상한다.

시장금리를 주 단위로 반영하는 나머지 은행도 시장금리 상승분만큼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 를 속속 올릴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가산금리까지 대폭 상향 조정한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 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다. 가산금리에 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 되는데,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 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장윤영 기자 zzang@